

광주·전남 아파트 입주경기 전망 개선

2월 광주 6개단지 1865가구·전남 1개단지 99가구 입주 입주경기실사지수 전달대비 광주84.3·전남 76.4로 상승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는 이달 1865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택산업연구원) 따르면 2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7.5포인트 상승한 84.3으로 조사됐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달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영향이 있고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신규 단지들의 입주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며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1월 실적치와 2월 전망치가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2월 지역별 HOSI 전망치는 95.6으로, 전달 대비 12.3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남도 5포인트 오른 76.4를 기록

했다. 이어 서울(94.2), 대구(93.1), 경남(92.5), 부산(92.3) 등이 90선을 기록했으며 경기는 101.8로 100선을 넘어섰다.

특히 경기는 교통 호재와 서울 출퇴근 수요의 영향으로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망치 100선을 나타냈다. 경남이 90선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달에는 전국 66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3만50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2만3617가구)보다 48.5%(1만 1452가구) 급증한 것이다.

광주는 6개 단지(민간분양 3개 단지)

1865가구가 이달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60㎡이하의 400가구(공공), 60-85㎡는 1465가구(민간)이다.

전남은 1개 단지 60-85㎡ 99가구(민간)다.

이밖에 경기 1만3283가구, 서울 8631가구, 인천 2280가구, 부산 1982가구, 전북 1409가구, 경북 1242가구, 강원 1216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에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의 62.5%(2만 1914가구)가 집중돼있다.

반면, 경남과 제주에는 이달 입주 예정인 민간분양 단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지역의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달에만 1865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도심에서 진행되는 신축 아파트 공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 1위

3.3㎡ 173만원·15.84% ↑

(단위:만원, %)

지역	2019.1	2019.12	상승률
광주	1092	1265	15.84
전남	796	809	1.63
서울	2508	2625	4.67
인천	1182	1320	11.68
부산	1342	1281	-4.55
제주	1129	1281	13.46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광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 동안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3.3㎡) 173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기간도 반년에 불과해 새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점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5.34%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124만원이었으나, 연말인 12월 1184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광주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해 1월 3.3㎡당 1092만원이었던 광주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12월 1265만원으로 무려 15.84%나 치솟았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서울의 상승률(4.67%)에 비해 세배 이상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산 자이&어울림'은 3.3㎡당 분양가가 1200만원대로, 전용 84㎡평형이 4억 7000만원 상단에 달했다. 2018년 12월 북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고운라피네' 전용 84㎡ 분양가가 3억7000만원이

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1억원이 오른 셈이다.

특히 분양가가 치솟았지만 무등산자이 어울림 2단지에는 광주 역사상 단일단지로는 최다 청약통장인 4만6524개를 접수 받으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광주는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일반 청약접수 경쟁률이 평균 37대 1을 웃도는 등 오히려 분양시장은 뜨거웠다.

광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에도 적용받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새 아파트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광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가 덜하다"며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다 광주의 부동산시장이 달아올라 분양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다자녀·고령자·일반가구 전세임대 7540호 공급한다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광주·전남 567가구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지원한도에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이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판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형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이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총 모집물량 중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광주에서는 다자녀 81호, 고령자 107호, 일반 109호를 공급하고, 전남은 다자녀 56호, 고령자 106호, 일반 108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2자

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가 아파트 매입·전세 361명 세무조사

불법 증여·탈루 혐의 등 30대 이하 청년층 74%

최근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부모 등으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임차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임차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1차(2019년 10~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 1201건(1차 531건+2차 670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

361명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게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